

지혜의 말씀

불기 2569년 5월 / 통권 530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법구경 (法句經)

원한을 원한으로 되갚는다고
맏힌 한이 풀어지랴?
원한을 품지 않아야만
원한이 풀어지리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네.

不可怨以怨 終以得休息
불가원이원 종이득휴식
行忍得息怨 此名如來法
행인득식원 차명여래법

- 법구경 계송 5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호화 결혼식 / 원성스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8

『법구경』 해설 - 5 / 자경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14

알림마당 · 15

고맙습니다

설담장학회 안내

법당 연등점수 안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제25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

저녁예불시간 변경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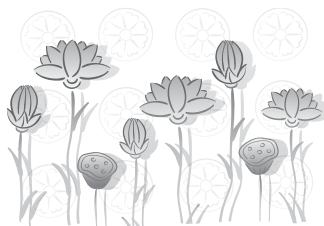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희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호화 결혼식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인도 사회에서 여성 지위는 남성에 비해 말 할 수없이 낮다. 시집갈 때 상당액의 지참금을 가져가야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하다. 터무니없이 작게 분배 받으며 사회 참여의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시골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여자 아이인 경우 살아나지 못하도록 숲에 버리는 사례가 허다한데 이는 여자아이가 장차 커서 시집갈 때 가지고 가야할 막대한 지참금 걱정 때문이다.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신부를 쫓아 내거나 심하게 구박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경우는 흔하다.



한번은 제법 고관 집 아들이 연애로 가난한 집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이 있었는데 신랑 측 부모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용케 승낙을 받아내고 드디어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지참금 거부 운동의 한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와 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과연 극심한 차별을 극복하고 끝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염려에 따르듯 시댁의 지참금 구박과 신분 차별은 극심했다. 여인은 길고도 혹심한 구박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인도의 가난한 많은 사람들 가슴을 또 한번 쓰리게 하는 비극적 사건이었다.

지참금 적게 가져오는 여인을 신랑과 시어머니가 함께 공모해서 죽이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나 시어머니는 크게 처벌 받지 않았다. 그것이 인도

사회의 관습이며 법 형평이다.

도대체 여인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심한 사회에서 어찌하여 여인을 맞이하는 결혼식은 무슨 이유로 그리 성대하게 치르는지. 무려 삼일씩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잔치를 벌리며 친지. 친척. 이웃들을 불러 먹고 마시고 노래한다.

결혼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영혼의 결합이 아닐까? 서로 다른 특성이 만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하나의 완벽을 꾀하는 희망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종족 보전을 위한 미래 지향의 꿈의 무대가 아닐까?

서울의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보통의 시민으로 직장을 다니며 조출하지만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도 한 채 마련하고 딸아이는 평균치는 되는 대학을 나오고 아들도 보통의 대학을 마치게 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원인은 딸아이가 재벌 집 아들과 연애를 하면서부터였다. 가정형편이 서로 다르면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설득하며 둘을 떼어놓으려고 해보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 결국 별 생각 없이 결혼시키기로 양가가 합의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재벌 집 혼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식을 호화롭게 치르려는 정도도 한이 없었다. 한 사람 식사대가 이십만원을 넘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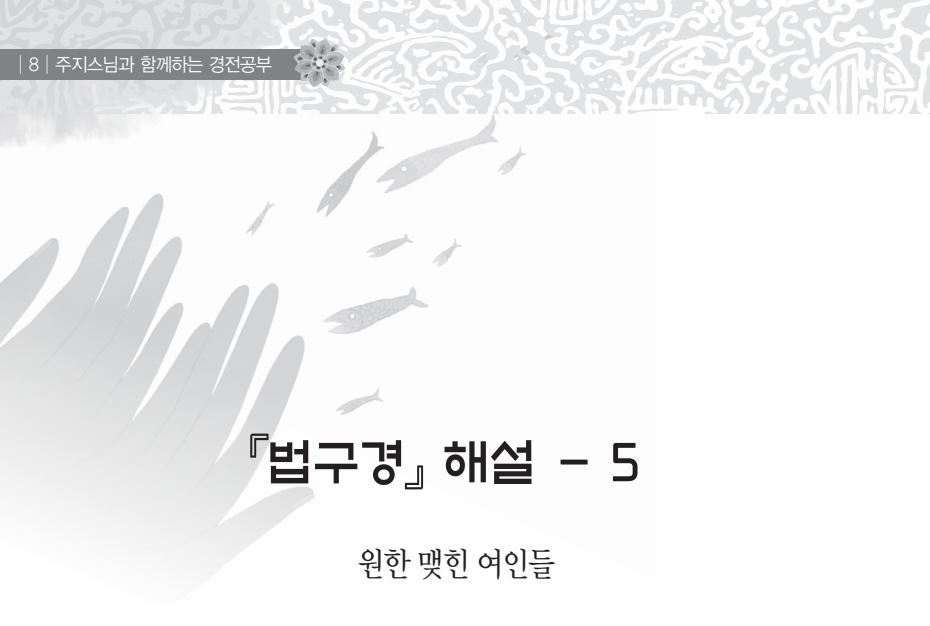
급 호텔에서 수억원이 드는 혼례를 치러야 했다. 혼례식에 드는 비용만으로도 그렇거니 혼수비는 또 얼마나 들었겠는가?

결국은 중간에서 물릴 수도 없는 쫓딱 소나기 맞은 꼴로 그나마 집 한 칸 지니고 있던 것까지 팔아 가면서 혼사를 끝내야 했다. 전셋집으로 이사하면서 하도 어처구니없는 심정어서 앞으로의 삶도 적잖이 걱정되고 하여 내게 하소연 하는 것이었다. (나라고 별 수가 있나?)

인도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느냐 마치 미개인 같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를 냉정히 돌아보면 우리도 미개하게 보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미개함을 가지고 있다.

시집가서 자기로 인해 쪼들리는 살림을 하시며 고생하는 친정부모를 생각하면서 걱정으로 날을 보낸다면 그 결혼은 결코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다. 딸 하나 시집보내자고 집을 팔고 빚을 내야한다면 그래서 나머지 식구들은 전셋집에서 고생해야한다면 그런 결혼은 결코 축복받는 결혼이 될 수 없다.

이제 결혼 철이 다가오는데 모두들 잘 생각하여 잘 선택해서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짓을 하지 않기 바란다.



『법구경』 해설 - 5

원한 맺힌 여인들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장자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자 혼자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게다가 노모까지 봉양했으므로 삶이 여간 팍팍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 해서 근방의 마을 처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렇게 결혼한 젊은 부부는 나름대로 평탄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지만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애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이를 낳게 하려고 남편에게 탄 여인을 맺어 주어, 급기야 두 아내가 같은 집에 살게 되었다.



그렇지만 막상 두 번째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자 첫 번째 부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새 부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에 대한 남편의 애정도 식어질 뿐 아니라, 이 집안에서 종처럼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둘째 부인에게 말했다.

“아이가 들어서면 바로 알려 주게.”

“그렇게 할게요.”

둘째 부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임신하자마자 첫째 부인에게 이를 알렸다. 불임의 아내는 매일 손수 우유죽을 끓여 산모에게 가져다주었다. 얼마 후 산모는 유산을 하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임신한 둘째 부인은 곧장 첫째 부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전처럼 불임 아내는 손수 우유죽을 끓여 산모에게 바쳤고, 산모는 또다시 유산했다. 물론 그 우유죽에는 낙태시키는 약이 들어 있었다.

이웃집에 사는 여인들이 모여 앉아 둘째 부인에게 물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첫째 부인이 자네에게 뭔가 가져다주지 않던가? ”

여인이 그렇다고 말하자 그녀들이 동시에 외쳤다.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임신한 사실을 왜 알려줬어? 그녀는 네가 제 자리를 차지할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유산시키는 약을 네게 먹인 거야. 앞으로 임신하더라도 절대 알리지 마.”



그래서 둘째 부인은 세 번째로 아이를 가졌지만 첫째 부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배가 불러오자 임신했다는 사실을 간파한 첫째 부인은 “아이를 가졌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제야 둘째 부인은 “나를 이 집에 데려와서 유산의 고통을 겪게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당신에게 말해야 하죠?”

자신의 계책인 들통난 첫째 부인은 산모의 경계가 소홀한 틈만 노리다가 배 속의 아이가 상당히 자라났을 무렵 기회를 포착해서 산모에게 약을 먹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가 거의 다 자란 상태였기에 아이가 나오다가 자궁 입구에 걸려 산모는 뱃속까지 차오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첫째 부인에 원한을 품고 아기와 함께 죽고 말았다.

그렇게 원한을 품고 죽은 그녀는 곧바로 그 집의 고양이로 태어났다. 한편 둘째 부인의 장례식 날에 이르러서야 첫 부인의 악행을 알게 되었다. 분노한 남편은 몽둥이로 첫 부인을 때 죽였다. 그렇게 죽은 첫째 부인은 그 집의 암탉으로 태어났다.

원한은 이어져 암탉이 알을 낳자마자 고양이가 와서 먹어 버렸고, 마침내는 암탉까지 잡아 먹어 버렸다. 뼈저린 원한을 품은 암탉은 죽어서 표범으로 태어났고, 고양이는 죽어서 암사슴이 되었다. 이번에는 세 번이나 표범이 암사슴의 새끼를 잡아 먹었다. 암사슴은 죽어서 여자 귀신(약키니)이



되었고, 표범은 죽어서 사위성의 여자 아이로 태어났다.

여자아이는 성장하여 결혼을 했고, 첫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자 귀신은 산모와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출산을 축하한다며 접근하여 마침내 아들을 잡아 먹었다. 그렇게 둘째도 잡혀 먹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인은 세 번째 출산 때는 친정에 갔다. 출산 후 친정 식구들에게 아기를 지키게 했음에도 여자 귀신은 어김없이 나타났고, 여인은 아들을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에 이르렀다.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여인은 아들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한편 여자를 뒤쫓던 귀신은 정사 앞을 지키는 신장(神將)에게 제지 당하여 밖에서 증오심에 몸을 떨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아난다에게 분부하시어 귀신을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는 귀신과 여인에게 그들의 과거 전생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어떻게 해서 원한이 다른 원한으로 이어졌으며, 그 원한이 또 다른 원한으로 이어져 순환하게 되었는지를 잘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나서 두 중생에게 서로 간 증오심을 버릴 것을 설법하시고, 앞(표지)의 계송을 읊으신 것이다.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 4월 28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4월 31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대웅전
- ◇ 5월 05일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오전 10시 설법전
- ◇ 5월 12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24일 : 제25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 오후 6시
- ◇ 5월 27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29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대웅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법당 연등접수 안내

- 대웅전 10만원 ■ 관음전 10만원
- 설법전 7만원 ■ 영가등 5만원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불기 2569년 5월 5일(양) 월요일 오전 10시
- 대광사 설법전 앞마당



대광후원회

(2025.3.19.~2025.4.17.)

황두관 1만원	선말수 1만원	구자민 3만원	정창운 5만원
이순남 1만원	변창인 2만원	정연수 3만원	김주영 5만원
정진이 1만원	김병문 2만원	김민설 3만원	배동환변화사 5만원
송성수 1만원	이인숙 2만원	김기훈 5만원	장세미 10만원
박미애 1만원	홍승운 2만원	김세훈 5만원	이병정열정영어 20만원
강성진 1만원	윤숙희 2만원	정대식 5만원	카텍홀딩스 30만원
조인우 1만원	신경미 3만원	조한분 5만원	
조유현 1만원	이우권 3만원	차재원 5만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지혜의말씀 후원(2025.3.19.~4.17.)

석용구 10만원 / 최귀향 5만원 / 송민기 1만원 / 청향심(영) 2만원

♥ 설담장학회(2025.3.19.~4.17.)

주지스님 10만원 / 김귀자영가 16만 2천원 / 최덕희 10만원 / 이희숙 10만원
문순자 5만원 / 제영길 3만원 / 진병천 3만원 / 이경화 2만원 / 구자민 2만원
변지오 2만원 / 이순남 1만원 / 조홍준 1만원 / 이윤정 1만원 / 이유림 1만원

제25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

■ 2025년 5월 24일(토) 오후 6시

■ 대광사 대웅전 앞마당



진해대광사 반야찬불단 / 시라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반야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대광사 수미산악회 회원모집

- 매달 3주 토요일 산행
(단, 사중 행사가 있을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회비 5천원 - 문의 및 접수 ☎ 545-9595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저녁예불시간 변경안내

- 4월 1일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

대광사 봉축법요식

* 일시 : 불기2569년 5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대광사 설법전

제25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

♪ 출연진 : 이옥천 여성국극단(정년이 실존인물),
박현빈, 박정서(미스터트롯3)

♪ 일 시 :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 장 소 : 대광사 대웅전 앞마당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대광사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 창원특레시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